

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정책과제 설명자료

※ 동 자료는 10.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
금융부문 정책과제의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.

- ①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1
- ②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대책 2
- ③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3
- ④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4

2022. 10. 27.

금 융 위 원 회

1 주요 과제 내용

- ①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·1주택자(기존 주택 처분조건부)의 경우,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%로 단일화
 -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·1주택자(기존 주택 처분조건부) 대상 LTV 규제를 50%로 단일화
 - (현행) LTV 규제는 보유주택·규제지역·주택가격별 차등적용
 - * 무주택자 및 1주택자(처분조건부) : (非규제지역) 70% (규제지역) 20 ~ 50%
 - 다주택자 : (非규제지역) 60% (규제지역) 0%
 - (개선)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·1주택자(기존주택 처분조건부)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%로 단일화(다주택자는 현행유지)
 - 투기·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·1주택자(기존 주택 처분조건부) 대상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
 - (현행) 투기·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
 - (개선) 투기·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·1주택자(기존 주택 처분조건부)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(LTV 50% 적용)
- ② 생활안정자금,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

2 향후 계획

-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, 「은행업감독규정」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

① 주요 과제 내용

- ① (일시적 경영애로 대응 : 12조원) 3高(高금리·高물가·高환율)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 공급
 - (금리)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대출,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 공급
 - (원자재)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특례대출, 원자재 가격상승 피해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 등
 - (환율)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(기은) 완화
- ② (취약기업 정상화 : 7.4조원)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
 -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,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조성, 신속금융지원 확대·상시화,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
- ③ (미래성장 지원 : 30.7조원) 혁신산업(디지털·초격차 기술 등) 육성과 창업·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계속
 - 벤처대출 시범도입, 창업기업 우대보증,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·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 확대
 -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의 우대보증·특례자금 공급

② 향후 계획

-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발표 (연내)

① 주요 과제 내용

-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(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)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'안심전환대출' 신규 공급
- 주택가격 4억원,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 대상 안심 전환대출 신청·접수 진행 중(9.15~10.31)
 - 금리상승기 취약계층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8.17일부로 보금자리론·안심전환대출 금리 동결*,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 - * 보금자리론 4.25~4.55%, 안심전환대출 3.80~4.00%(저소득·청년층은 10bp 추가 우대)로 동결
 - 현재 누적(9.15.~10.25.) 신청금액은 3.9조원, 신청건수는 3.8만건

② 향후 계획

- 11.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 개시
 - (주택가격요건) 시세 4억원에서 **6억원** 이하로 확대
 - (소득요건) 부부합산소득 7,000만원에서 **1억원** 이하로 확대
 - (대출한도) 대출한도는 최대 2.5억원에서 **3.6억원***으로 확대
 - * 기존대출 범위 내, LTV 70%, DTI 60% 일괄 적용
- ※ 기존에 신청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,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 가능

⇒ 2단계 접수 상세 일시·방법, 내년도 정책모기지 개편안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

① 주요 과제 내용

○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추진

- (현행) 실직·폐업·질병 등의 경우,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*인 주담대 차주에 대해 은행권은 분할상환, 원금상환 유예(최대3년) 등 지원중

*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

- (개선) 실직·폐업·질병뿐 아니라, 매출액 급감,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 적용

▪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차주의 신용도, 다중채무 여부,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,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하여 요건 설정

② 향후 계획

○ 은행권 실무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 예정

→ 내년 초, 「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」 개정 추진